★ 백승을 떨쳐온
조선인민군의 75년
★ 비료생산으로 들끓는 남흥
★ 백두산의 자연경관
조선
주체112
(2023)
2
(800)

주체45(1956)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 례 CONTENTS

기념편집

4 ‖ 희세의 정치원로, 만민의 흠모
24 ‖ 백승을 떨쳐온 조선인민군의 75년
- 혁명적정규무력을 창건하시여
- 혁명무력강화의 새 전기를 펼치시여
- 무적필승의 최정예혁명무력으로

소 식

7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 진행

오늘의 조선

74 ‖ 비료생산으로 들끓는 남흥
78 ‖ 남새생산의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를 실현하여
84 ‖ 누구나 즐겨찾는 《대하》식료품
88 ‖ 재능을 꽃피워간다
92 ‖ 미림항공구락부에서
96 ‖ 송화거리의 저녁
102 ‖ 한생을 바쳐

자 연

106 ‖ 백두산의 자연경관

력사, 문화

116 ‖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118 ‖ 조선민족음식 떡

표지, 뒤표지: 조종의 산 백두산

편 집: 신재철, 김정철, 김규성, 최일선, 조철주, 승 룡

24

74

92

96

정일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백두산밀영고향집에서 탄생
1942. 2. 16.

희세의 정치원로, 만민의 흠모

2월과 더불어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이하는 조선인민은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생애를 더욱 뜨겁게 되새기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

지난 20세기말은 세계적인 동란이 련이어 일어난 격변과 도전의 시기였다. 세계정치구도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고 제국주의자들의 폭제와 강권이 극도에 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처럼 엄혹한 정세속에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을 확립하시고 강철의 담력과 의지, 비범한 외교지략으로 공화국의 자주권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시였다.

1990년대초부터 시작된 전대미문의 조미대결에서 오만한 세력을 무릎꿇게 하시고 사회주의와 인류자주위업을 굳건히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국제정치의 흐름을 정의와 평화의 한길로 주도해나가시였다.

생의 마지막시기에만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시면서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더욱 공고히 하시고 두차례에 걸쳐 로씨야련방에 대한 방문을 진행하시여 조로친선을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 진행하신 방문들은 굳건히 계승되는 친선의 바통과 공고성에 대한 일대 과시, 자주의 기치밑에 단결과 협조를 지향하는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의 산 모범으로서 인류자주위업의 줄기찬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조선을 방문한 여러 나라의 당 및 국가수반들과 정계, 사회계 인사들, 대표단들을 만나시여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 반제자주력량의 단결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진로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장군님을 세계의 정치원로로 높이 칭송하였으며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목소리는 오늘도 힘있게 울려퍼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중국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2(1983)년 6월

등소평 중국공산당 중앙고문위원회 주임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2(1983)년 6월

습중훈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와 상봉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2(1983)년 6월

강택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와 상봉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9(2000)년 5월

호금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와 담화를 나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5(2006)년 1월

조선을 방문한 웨. 웨.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과 상봉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9(2000)년 7월

웨. 웨.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과 또다시 상봉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0(2001)년 8월

데. 아. 메드베제브 로씨야련방 대통령과 담화를 나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8월

쩐 득 르엉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과 상봉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1(2002)년 5월

농 득 마잉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부터 선물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6(2007)년 10월

피델 까스뜨로 루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과 상봉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5(1986)년 3월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과 상봉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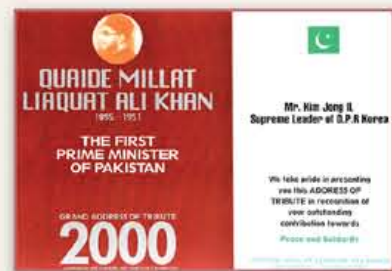
주체91(2002)년 3월

매덜레인 케이. 알브라이트 미합중국 국무장관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9(2000)년 10월

유럽동맹 최고위급대표단 성원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0(2001)년 5월

노로돔 시하누크 캄보쟈왕국 국왕으로부터 캄보쟈의 최고훈장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3(2004)년 7월

카이손 폼비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으로부터 라오스의 최고훈장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1(1992)년 4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드린 훈장들의 일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드린 메달들과 명예칭호들의 일부

백승을 떨쳐온 조선인민군의 75년

항일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이 창건된 때로부터 75년이 되였다.

주체37(1948)년 2월 8일은 조선인민의 오랜 숙망이 성취된 민족적대경사의 날이며 주체의 건군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의 날이다.

혁명적정규무력을 창건하시여

주체37(1948)년 2월 8일

혁명적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

공화국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차게 추동하고있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창건 75돐을 맞이하고있다.

조국해방(1945년 8월 15일)직후 건당, 건국, 건군의 3대로선을 내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사정치간부들을 키워내고 각 군종들과 여러 병종부대들을 조직하며 자립적국방공업의 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나라가 해방된지 불과 2년 남짓하였던 주체37(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의 창건이 온 세상에 선포되게 되였다.

력사의 그날 열병광장에 터져올랐던 《만세!》의 환호성은 자기의 군대를 갈망하던 조선민족의 숙원을 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터친 인민들의 다함없는 고마움의 분출이였고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수호의 빛나는 장을 펼쳐나갈 민족적의지의 분출이였다.

조선인민군의 75년력사는 위대한 령장들을 높이 모시여 자기 발전의 끊임없는 전성기를 이어온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조선인민군 열병식 주석단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7(1948)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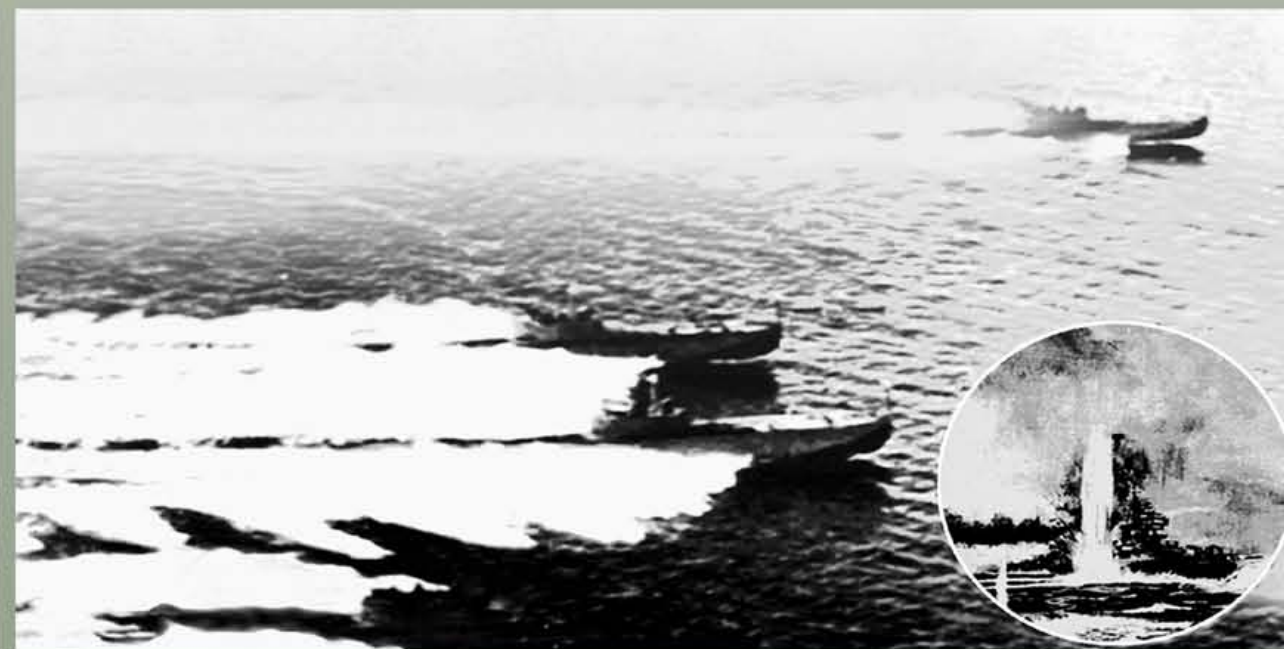
조선인민에게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라는 방송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9(1950)년 6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방송연설을 높이 받들고 인민군용사들은 즉시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가 전쟁이 개시된지 3일만에 적들의 아성인 서울을 해방하는 세계전쟁사상 류례없는 전과를 거두었다.

갱도진지굴설작업현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0(1951)년 10월

공화국영웅 및 모범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0(1951)년 6월

주체42(1953)년 7월 27일

조선인민군은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는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하는 전승신화를 창조하였다.

인민군장병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2(1953)년 8월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는 조국해방전쟁(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7일)에서 청소한 조선인민군은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희생성을 발휘하여 마침내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하고 전승의 축포를 쏴올렸다.

1950년대의 빛나는 승리는 년대와 년대를 이어 줄기차게 이어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은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한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며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힘있게 떨쳤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52(1963)년 2월 대덕산초소를 찾으시여 《일당백》의 혁명적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최전연초소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2(1963)년 2월

조선인민군은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을 비롯한 적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렸다.

조선인민군 구분대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54(1965)년 5월

인민군병사의 무장상태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4(1965)년 5월

인민군군인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5(1966)년 2월

땅크병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72(1983)년 4월

무장장비들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5(1986)년 4월

혁명무력강화의 새 전기를 펼치시여

조선인민군의 위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군건설사상과 령도밑에 더욱 강화되였다.

1960년 혁명무력에 대한 령도의 첫 시기에 벌써 인민군대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들고나가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군**김일성**주의화강령을 제시하시고 인민군대안에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여 조선로동당의 위업을 총대로 옹위하는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이끄시였다.

새해의 첫아침에 다박솔중대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4(1995)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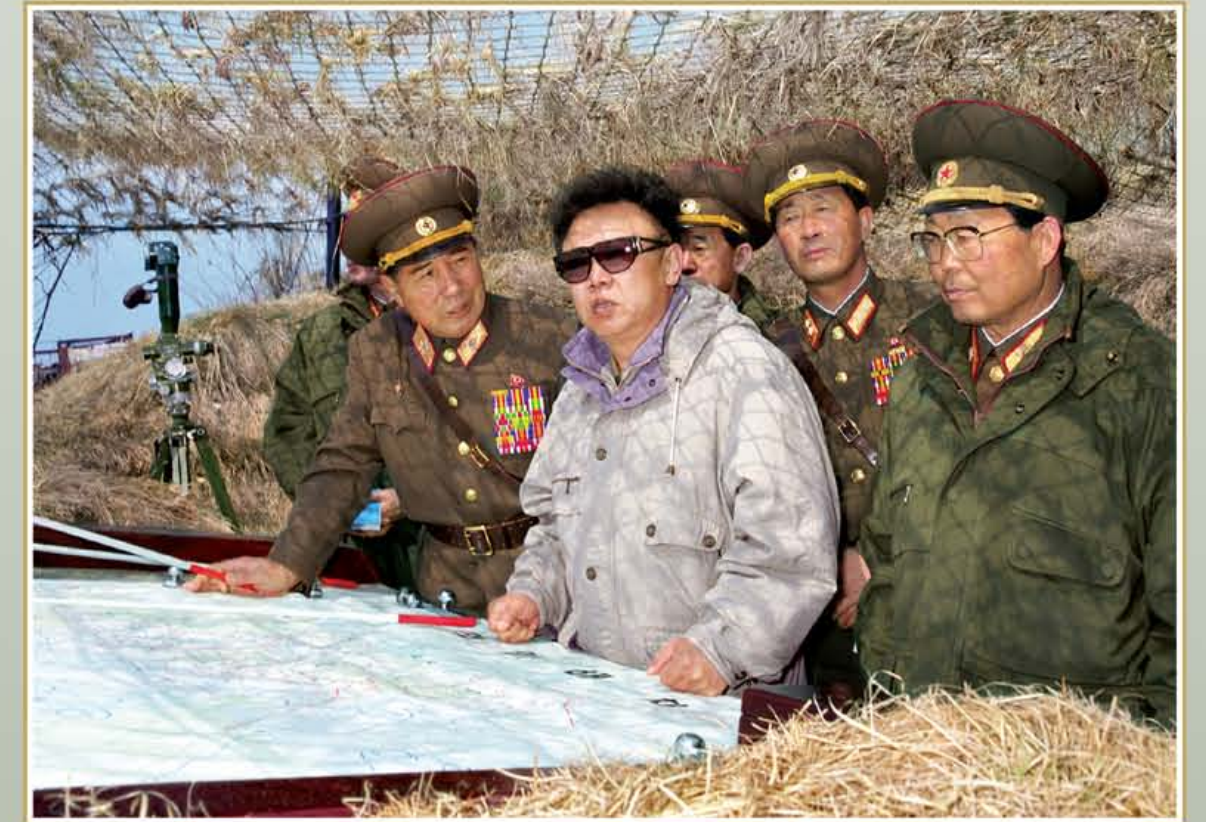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정치상학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9(2000)년 7월

전투기술기재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9(2000)년 4월

특히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사회주의 조선이 그처럼 모진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면서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할수 있은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정치가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다.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존엄과 평화,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시고 불철주야로 군령도의 로정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에게 그 어떤 강적도 물리칠수 있는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전법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도 찾아가시여 그들에게 육친의 정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기에 최고사령관과 병사들사이의 혼연일체가 더욱 굳건해지고 인민군대가 혁명적동지애로 뭉친 무적의 대오로 장성강화되였다.

조선인민군 공군 군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7(2008)년 12월

전방지휘소에 오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6(1997)년 4월

조선인민군 해군 군부대를 찾으시여 무기를 수여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6(1997)년 6월

판문점을 찾으시여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는 초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5(1996)년 11월

훈련에서 성과를 거둔 군인들을 축하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7(1998)년 1월

인민군군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0(2011)년 11월

무적필승의 최정예혁명무력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오늘 조선인민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자기 발전의 전성기를 펼쳐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 임무로 밝혀주시여 인민군대가 끊임없이 강화발전해나갈수 있는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백승의 전략전술과 혁명무력의 최정예화, 강군화로선을 제시하시고 근위부대운동,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열풍, 군기확립의 된바람을 일으켜주시며 건군사에 일찌기 없었던 실전훈련, 훈련경기들도 직접 조직지도해주신 그이의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 그 전투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정치사상적으로 우월하고 도덕적으로 건전하며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무적강군으로 존엄떨치고있으며 그 위세는 날로 높아지고있다.

전쟁의 불구름이 항시적으로 밀려왔어도 조선인민이 수십년동안 평화적환경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있는것은 혁명무력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당중앙이 그어준 돌격침로따라 용감하게 돌진해나가는 조선인민군이 있기에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담보되고 조선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은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앞으로도 자기의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갈것이다.

섬방어대를 찾으시여 이곳에 깃든 당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1(2012)년 4월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4(2015)년 4월

서남전선지구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군부대들을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1(2012)년 2월

명포수들로 자라난 웅도방어대 군인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3(2014)년 7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의 검열비행훈련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3(2014)년 10월

《조선인민군 땅크병경기대회-2016》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3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의 대상물타격경기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8월

해병들의 실동훈련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3(2014)년 6월

주체111(2022)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11(2022)년 11월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 주석단에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11(2022)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가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시, 군인민위원장들, 관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개회사를 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사업보고와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2(202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의 사업보고를 승인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비료생산으로 들끓는 남흥

5개년계획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를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열의안고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년초부터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지속적발전을 위한 단계별, 공정별 목표를 높이 세운 이곳 일군들은 능숙한 조직사업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생산자대중의 기세를 계속 고조시키고있다.

일터마다에서 과학기술과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에 의한 생산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성형직장과 발생로직장들에서는 설비운영방법을 더욱 세련시켜 질좋은 봉탄을 생산하고 가스생산도 늘이였다.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설비들의 보수기일을 훨씬 단축한 뇨소직장, 암모니아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제고하는것과 함께 표준조작

법을 철저히 지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직장별, 교대별사회주의경쟁열의가 고조되는 속에 출하직장에서는 공정간맞물림을 강화하면서 비료포장과 출하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기술자들도 창조적지혜를 합쳐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면서 실수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고있다.

올해의 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해 떨쳐나선 이곳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매일 많은 비료가 생산되고있다.

사진 황정혁
글 박병훈

남새생산의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를 실현하여

- 련포온실농장을 찾아서 -

세계굴지의 현대적인 남새생산기지로 일떠선 련포온실농장의 온실마다에 흐뭇한 작황이 펼쳐졌다.

련포온실농장은 나라의 중요한 공업도시, 과학도시인 함흥시와 함경남도 인민들의 남새보장문제를 항상 관심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웅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일떠선 남새생산기지이다.

280정보의 부지에 들어앉은 850여동에 달하는 온실들에서는 갖가지 남새들이 재배되고있다.

반궁륭식2중박막수경온실들에서는 갖가지 열매남새들과 잎남새들이 자라고있다.

그리고 지열난방관을 설치한 수십동의 모온실들에서는 남새모들이 자라고있다.

온실들마다 수경재배기술과 종합적인 영양액분석체계를 비롯한 선진기술들이 도입되고 현대적인 설비들이 그쯘히 장비되여있다.

생산면적과 생산능력도 세계최대규모이고 남새생산의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도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온실농장이다.

이뿐이 아니다.

113개 호동에 무려 1,000여세대의 단층, 소층살림집들이 99가지의 각이한 형식을 갖추고 일떠선 농장마을은 마치 이름난 휴양지를 방불케 한다.

국가에서 무상으로 준 희한한 살림집들에서 사는 농업근로자들의 기쁨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인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나갈 일념을 안은 이곳 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노력으로 생산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사진 리명국, 우정국
글 박의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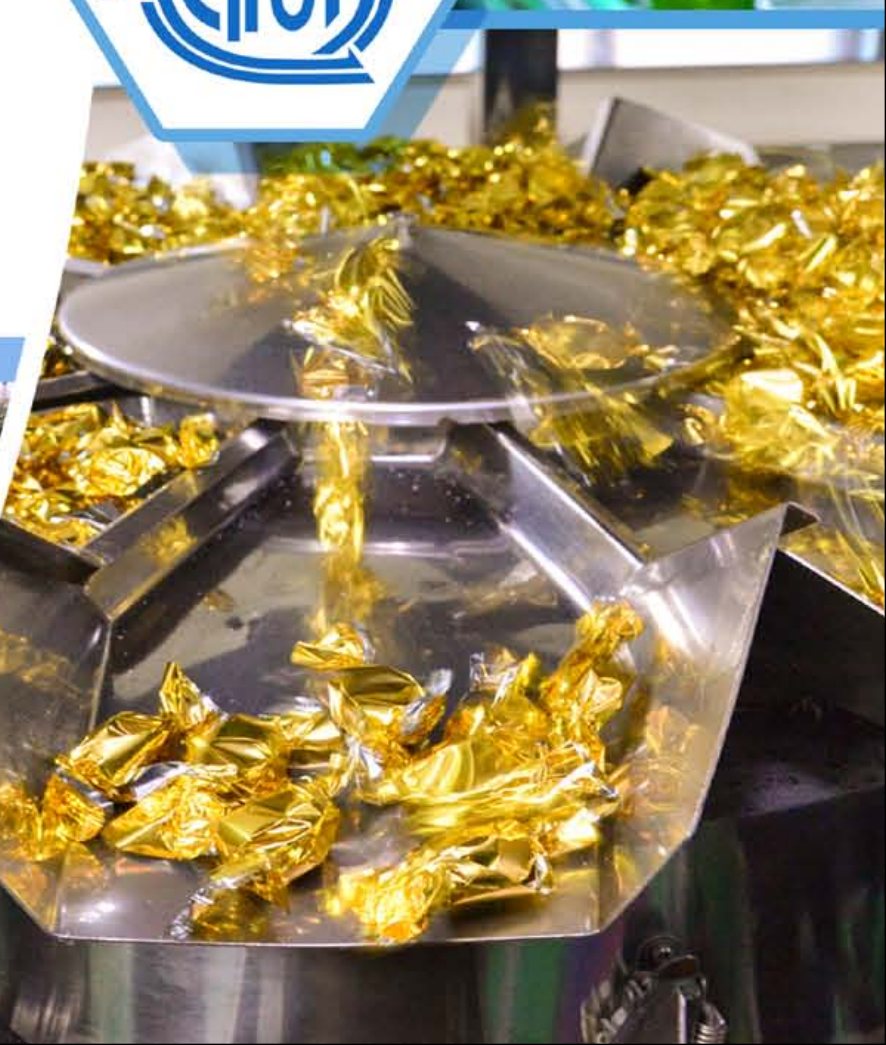
769
700

누구나 즐겨찾는 《대하》식료품

평양시 보통강구역 운하동에 주체103(2014)년 6월에 조업한 운하대성식료공장이 자리잡고있다.

인민생활향상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리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정책을 높이 받들고 줄기차게 노력하고있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다.

인민들에게 질좋은 식료품이 대하처럼 흘러들게 하려는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대하》라는 상표의 이름에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공장에서는 모든 생산공정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내밀어 제품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주목을 끄는것은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뿐 아니라 신입공들까지 참가하는 새 제품개발사업이다.

조업당시 몇종 안되는 제품생산으로 첫걸음을 떼였던 공장에서는 지금까지 600여가지에 달하는 식료품들을 개발하였다.

최근년간에만도 여러가지 산열매와 수산물 등으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기능성영양식품들을 수십가지나 개발하였다.

오늘 공장의 많은 제품들이 국내의 최우수제품으로 평가되고있다.

평양제1백화점, 광복지구상업중심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상점들뿐 아니라 전국각지의 상업봉사망들에서 《대하》상표를 단 식료품을 찾는 구매자들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박병훈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의 일부

재능을 꽃피워간다

-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을 찾아서 -

자강도 강계시의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에서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풍치수려한 장자강반에 자리잡고 있는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관을 가슴뜨겁게 전하는 사랑의 요람, 아이들의 궁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자강도에 학생소년궁전을 건설하도록 하시고 수많은 교육설비들과 악기등을 보내주시였으며 은정깊은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주체108(2019)년 5월 궁전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소년궁전개건정형과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보다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과외교육교양거점으로 꾸리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하여 지난해 10월 20여개의 소조실들과 체육관을 비롯하여 청소년학생들의 과외활동에 필요한 조건과 환경이 높은 수준에서 갖추어진 궁전의 준공식이 진행되였다.

지금 강계시안의 수많은 학생들이 하루수업을 마치고 이곳에 찾아와 희망과 재능을 꽃피우고있다.

높은 실력을 갖춘 궁전의 지도교원들은 그들을 훌륭한 재간둥이들로, 앞날의 주인공들로 키우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사진 황정혁
글 박병훈

하루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20여개의 소조실들에서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다.

구락부에서는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면서 하늘을 날고싶어하는 손님들을 위한 봉사도 진행하고있다.

미림항공구락부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조선인민의 기쁨넘친 모습은 지상에만 펼쳐지는것이 아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심한 배려속에 마련된 미림항공구락부의 관광비행봉사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평양시교외에 자리잡고있는 구락부로는 하늘《려행》의 쾌감을 맛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그들속에는 결혼식날의 신랑, 신부며 부모들과 함께 온 어린이들 그리고 로인들도 있다.

산뜻한 옷차림에 흥분으로 저으기 상기된 그들을 태운 비행기들은 시원하게 뻗어간 활주로를 따라 경쾌하게 달리다가 마침내 하늘로 날아오른다.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수도의 거리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과 모란봉, 대성산 등의 경치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누구나 연해연방 환성을 터쳐올린다.

하늘에서 본 지상의 광경이 너무도 황홀하여서인지 혹은 예상과 달리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진 비행이여서인지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마다 자신들의 소감을 터놓느라 법석인다.

구락부에서는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면서 하늘을 날고싶어하는 손님들을 위한 봉사도 진행하고있다.

이를 신청한 사람들은 지상에 있는 련습기들에서 조종방법을 충분히 익힌 다음 비행기에 오르게 된다.

이때 비행사들은 뒤좌석에서 그들의 비행조종을 도와준다.

특색있는 관광으로 마음도 한껏 부푼 손님들은 구락부에 꾸려진 편의봉사시설들을 찾아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한다.

사진 황정혁
글 박의철

03

송화거리의 저녁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기간 평양시에 해마다 1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할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지난해 동평양지구에 일떠선 송화거리의 저녁이다.

하늘의 은하수가 통채로 내려앉은듯 새 살림집들의 창가마다 흐르는 밝은 불빛이 거리 곳곳의 화려한 조명장식과 어울려 이채로운 절경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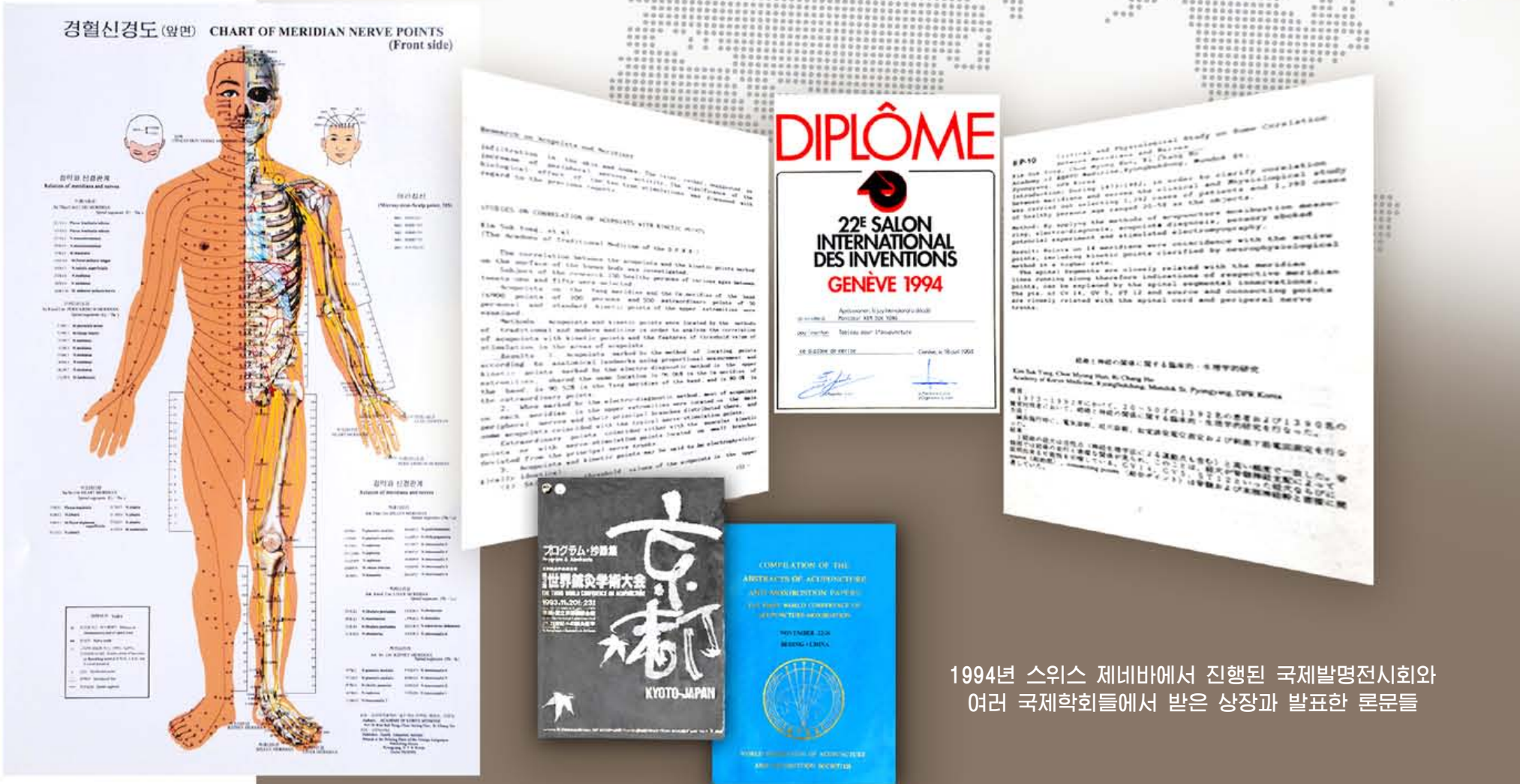
창조와 혁신의 하루일을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아늑한 보금자리로 향한 사람들의 모습은 볼수록 유정하다.

온 식구가 떨쳐나와 새 거리의 아름다움을 부감하는 가정들의 단란한 모습에도, 다정히 속삭이며 산보길을 이어가는 청춘들의 모습에도 기쁨과 랑만이 함뿍 어려있다.

그런가 하면 도처에 꾸려진 상점, 식당을 비롯한 봉사시설들을 리용하는 손님들의 만족스런 모습도 보인다.

온갖 시련속에서도 인민을 위한 시책을 변함없이 펼쳐가는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보답의 마음을 더욱 가다듬는 이곳의 주민들이다.

사진 황정혁
글 리진범

품질이 담보된 보리길금, 호프, 효모로 제조한 은하수맥주는 현대적인 양조 및 발효설비와 살균려과기술이 도입되여 그 맛과 위생안전성이 보장되고있습니다.

199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국제발명전시회와 여러 국제학회들에서 받은 상장과 발표한 론문들

한생을 바쳐

사람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식과 열정을 바쳐가는 의학자들속에는 고려의학종합병원 연구사인 인민과학자 공훈의사 후보원사 교수 박사인 김숙영과 침구학연구집단도 있다.

김숙영은 1960년대중엽에 청진의학대학을 졸업하였다.

신경의학분야에서 사업하면서 일정한 경험을 쌓은 그는 30대초에 벌써 풍부한 지식과 높은 치료성과로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가 고려의학분야의 경혈과 현대의학의 신경계통사이 호상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시작한것은 50여년전부터이다.

그때 그는 침구학이 반드시 오늘과 같이 생명과학의 중요한 분야로 될것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었다.

20여년의 이악한 노력끝에 그는 《경혈신경도》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주체81(1992)년에 첫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2년후 그가 만든 《경혈신경도》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진행된 제22차 국제발명전시회에 출품되여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후에도 김숙영과 그의 연구집단은 림상실천을 통하여 연구성과를 확증하면서 《경혈신경도》를 더 훌륭하게 완성하기 위한 탐구를 계속하였다.

그 나날 《경혈신경도》는 의학교육과 의료활동에 널리 활용되게 되였고 오늘은 세계의 수십개 나라들에서 보급되고있다.

《경혈신경도》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새로 출판발행되였다.

김숙영은 지금까지 수많은 도서들을 집필하였으며 수십명의 학위학직 소유자들을 키워냈다.

김숙영이 집필한 의학도서들의 일부

《경혈신경도》를 연구하던 나날에

김숙영은 오늘도 림상실천을 통하여 연구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탐구에 심혈을 다 바치고있다.

과학앞에서는 무한히 겸손하라. 이것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한생을 의학탐구를 위해 바쳐오는 80살 로과학자의 좌우명이다.

지난해 그는 고려의학발전과 후비양성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후보원사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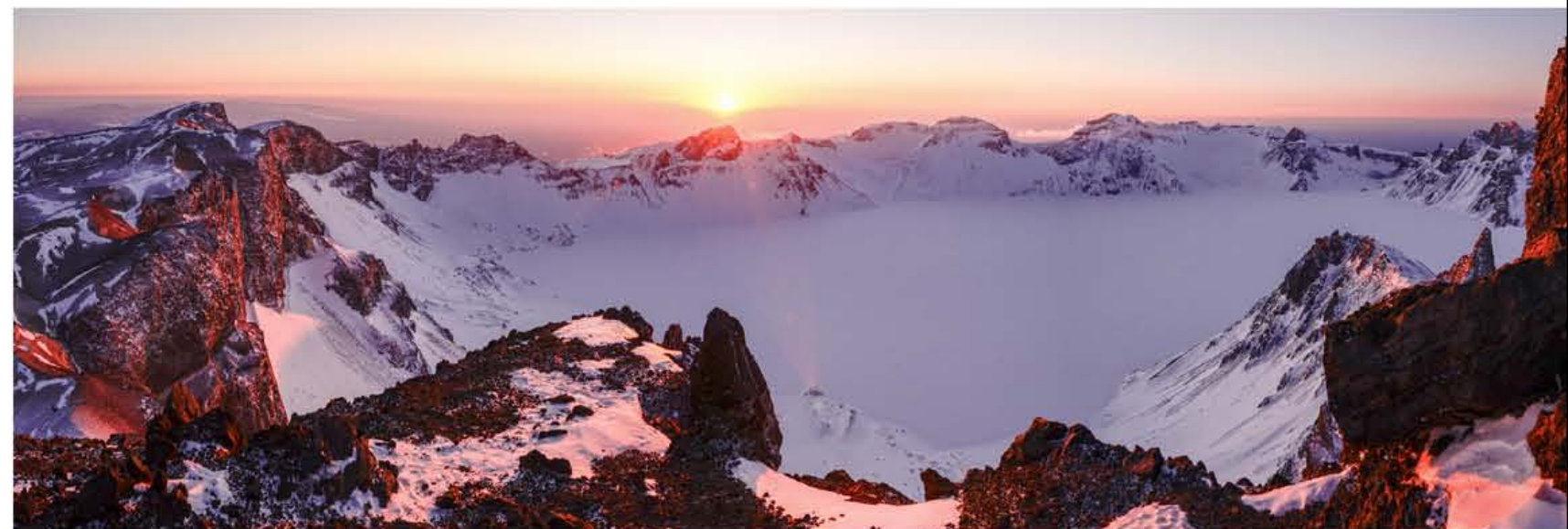
사진 라평렬
글 최광호

백두산의 자연경관

조선민족의 넋이 깃들어있는 백두산은 조선의 6대명산중에서 첫자리에 놓이는 명산이다.

해발높이 2,750m인 장군봉을 비롯한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천지를 둘러싸고 련봉을 이룬 백두산의 풍치는 그야말로 황홀하다.

사진 변찬우

사진 김국현

천지면적 9. 16㎢
최대물깊이 384m

대자연속에 펼쳐지는 백두산설경의 특징은 휘몰아치는 눈보라와 끝간데 없는 눈바다이다.

사진 최철민

백두산정에 올라 밀림의 바다를 헤치고 솟아오르는 해돋이를 부감하는 장쾌함은 황홀경의 극치이다.

사진 최철민

사진 김성철

사진 홍철국

사진 변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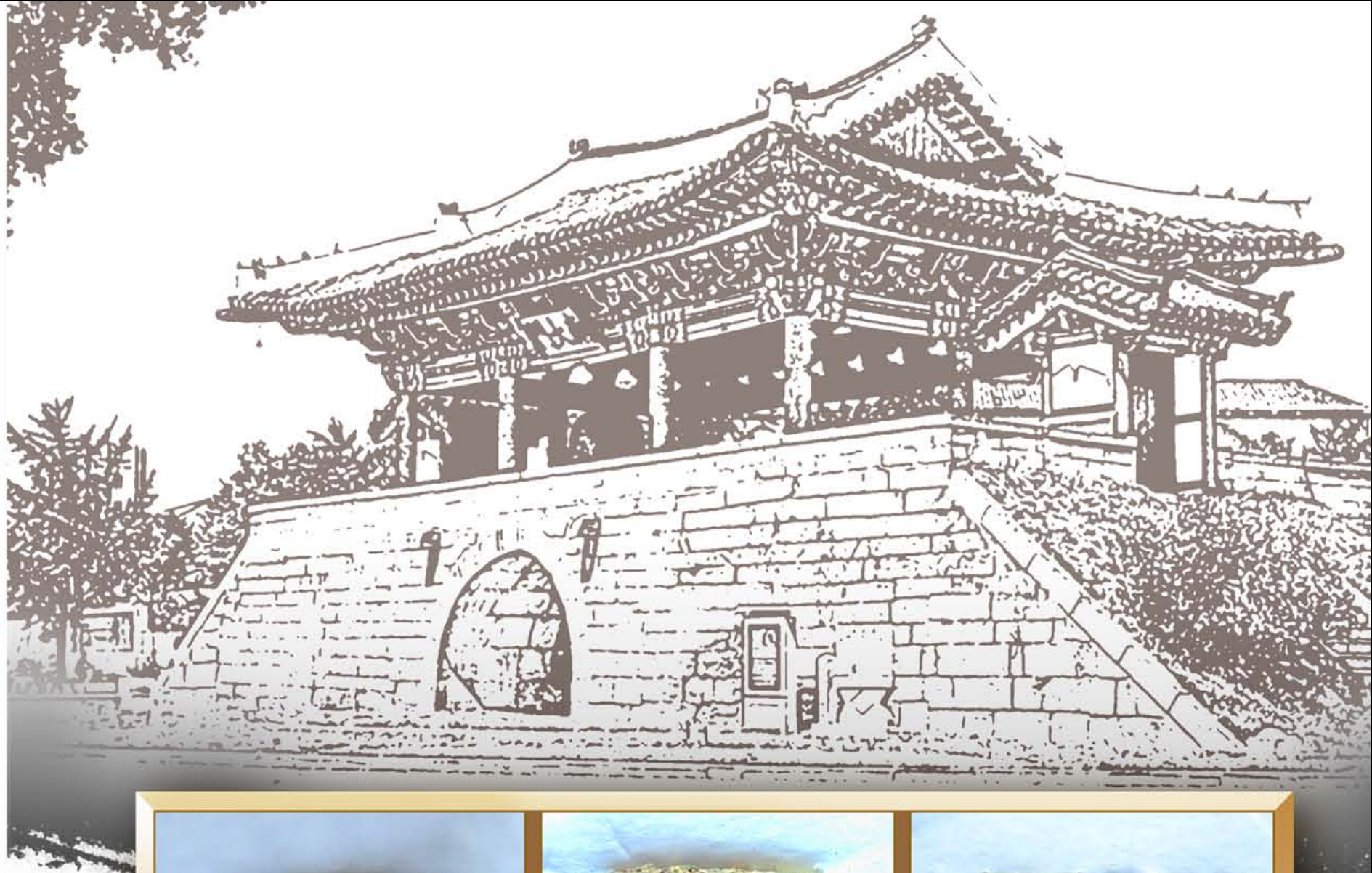
사진 변찬우

사진 홍광남

사진 한금철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11세기말 12세기초에 발명

고려(918년-1392년)에서 금속활자가 발명될수 있었던것은 10~11세기에 문화가 급속히 발전되면서 서적에 대한 늘어나는 사회적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고려인쇄기술자들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으로 목판 및 목활자인쇄기술을 발전시켜온 오랜 경험과 토대가 있었기때문이다.

조선에서 금속활자가 나온것은 고려(918년-1392년)때인 11세기말 12세기초이다.

이때 금속활자가 발명될수 있은것은 서적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것과 함께 인쇄기술자들이 축적한 경험과 당시의 금속주물 및 가공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기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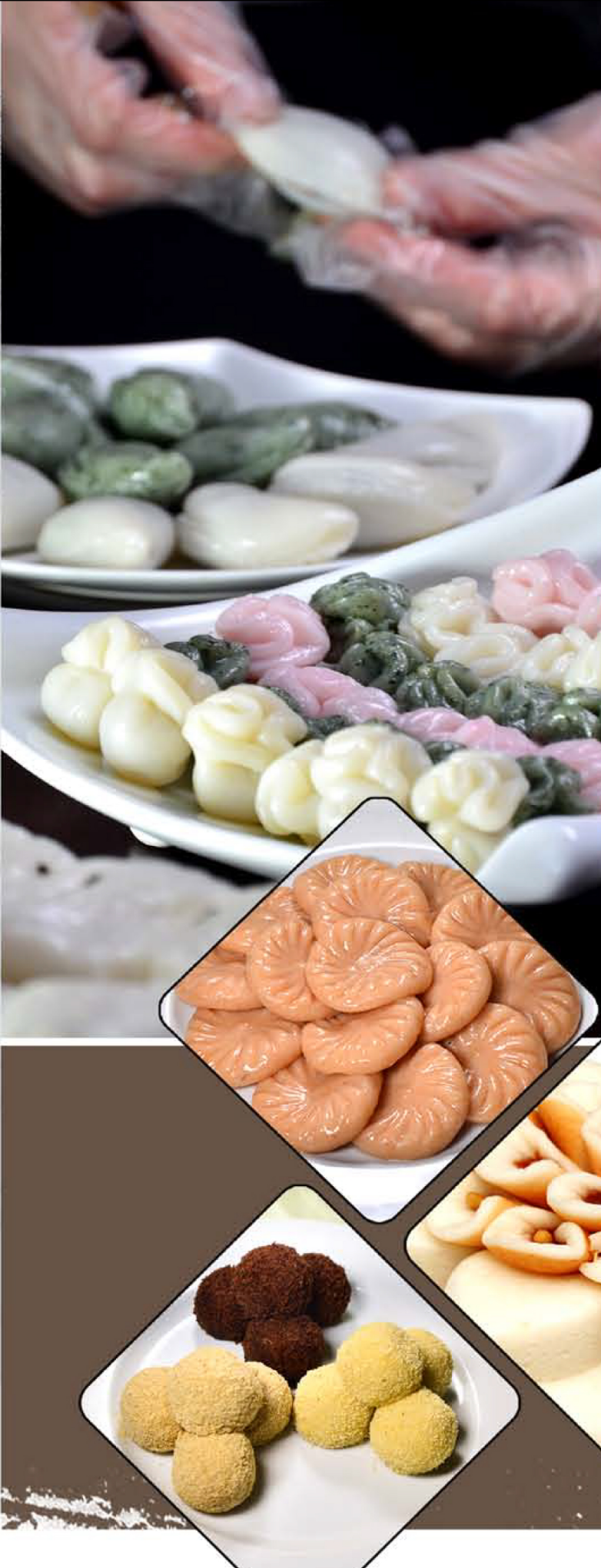
고려에서 발명한 금속활자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른것으로서 1423년과 1450년에 네데를란드와 도이췰란드에서 각각 발명했다는 금속활자들에 비해 약 300년이나 앞선것으로 된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지방에서 발굴된 금속활자들은 당시의 인쇄기술의 면모를 짐작할수 있게 한다.

발굴된 금속활자들의 재질은 모두 청동이며 모양은 직6면체이다.

금속활자의 발명과 더불어 서적출판사업은 조선에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게 되였다.

1377년에 조선에서 출판된 한 서적은 현재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금속활자로 찍은 책들가운데서 가장 오랜것으로 인정되고있다.

조선민족음식 떡

떡은 조선의 대표적인 민족음식의 하나이다.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일상적으로는 밥을 주식으로 하고 명절과 생일, 결혼식 등 경사로운 날이면 집집마다 떡을 만들어먹는것을 식생활풍습으로 전해오고있다.

조선의 청동기시대유적들에서 떡을 만들 때 쓰던 여러가지 모양의 시루들이 나온것은 떡의 력사가 매우 오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쌀을 쪄가지고 치거나 낟알가루를 반죽하여 익혀서 만드는 떡은 그 재료와 만드는 방법이 다양한것으로 하여 종류가 매우 많다.

떡에서 대표적인것은 찹쌀 또는 찹쌀가루를 시루에 쪄내여 쳐서 만드는 찰떡이다.

지난날 적당한 량의 찰떡을 만들려면 재료를 절구에 넣고 쳤지만 많은 량이 필요할 때에는 떡돌이나 떡판우에 놓고 남정들이 떡메를 휘두르며 쳐서 만들었다.

찰떡의 고물로는 닦은 콩가루, 팥, 참깨, 대추, 밤, 잣 등을 쓴다.

특별히 찰떡을 좋아하는 조선인민은 잔치상 특히 결혼식상에 찰떡을 올려놓았다.

그것은 서로 맞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 찰떡처럼 신랑신부가 검은머리 희여질 때까지 의좋게 함께 살아가기를 바래서였다.

쌀가루를 내서 만드는 떡도 송편, 쉬움떡, 설기떡 등 종류가 다양한데 만드는 방법이 서로 다르고 맛도 개개가 특색이 있다.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귀한 손님이 오면 떡을 만들어 대접하였고 이웃집들에 맛을 보라고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가정에서의 떡만들기풍습은 각종 떡들이 공업적으로 생산되는 오늘에도 이어지고있다.

사진 방은심
글 강수정

ㄱ-23088001080

낸 곳: © 조선화보사 2023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